



한라산둘레길 훼손지 집중 점검·정비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은 3월 한달간 국가숲길 한라산둘레길의 훼손지와 보완이 필요한 곳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낡은 목재데크를 보수했다. 또한 천아숲길 등에서 전도목 정비 및 이정표 보완 등 국가숲길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캠페인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대장 김원종)는 지난 19일 대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범도민 교통안전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리얼플랜제주,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동참

행사 및 마케팅 전문기업 리얼플랜제주(주)(대표이사 이동환)는 지난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초록우산 제주후원회(회장 고영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리얼플랜제주(주)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동환 대표이사는 “특별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만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이 진행하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 ‘서귀포시 문화광장’ 개장

서귀포시가 지난 24일 현장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지역 도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서귀포시 문화광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244억원이 투입된 서귀포시 문화광장은 도심 속 부족했던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탁 트인 광장을 중심으로 시민문화홀과 분수대, 도시숲, 128면 규모의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된 도심 속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개장식에서 오순문 시장은 “앞으로 시민 모두의



열린 광장이자,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다환경지킴이·유람선 협업 해양 정화

제주시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역 민간업체와 협업해 환경면 차귀도 일대에 대한 해양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차귀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지정된 무인 도서로 해안가와 갯바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경관 훼손은 물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바다환경지킴이와 지역 민간업체인 ‘차귀도 선셋 유람선’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유람선은 고산리 주민들이 참여한 고산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2월 취항 이후 지역 기반 해양관광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람선 측은 무상으로 정화 인력과 장비 이



동을 지원하는 등 정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귀도 주변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청정 제주 바다 조성을 위해 다양한 단계와 민간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두 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취임

김문두(사진)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2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2026년-2028년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정신약물학회는 1985년 창립된 이후 500여 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중추적인 학회로서 지난 40년간 정신약물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아시아정신약물학회(AsCNP, Asi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차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7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정신약물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대, 장원국 전 센터장 겸임교수 임명

제주대학교는 최근 국내 최초로 ‘용암해수학 및 제주 물자원학’ 교과목을 개설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장원국(사진) 전 센터장을 겸임교수로 임명했다.



장원국 교수는 용암해수의 학문적 명칭인 ‘Yongam Seawater’의 국제 공식화에 기여했으며, 용암해수의 과학적 특성, 미생물학적 가치, 기능성 및 산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용암해수는 제주 화산지형에서 형성된 독특한 수자원으로, 청정성과 미네랄 조성, 미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 미래 전략자원이자 차세대 해양바이오·코스메틱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천동연합청년회 이웃사랑 쌀 기부

서귀포시 대천동연합청년회(회장 홍대호)는 지난 23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대천동연합청년회 이·취임식에서 받은 쌀 10kg·60포(600kg)를 대천고광에 기탁했다.

홍대호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식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탁한 쌀은 대천고광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에 지원 될 예정이다.



조천적십자봉사회 결성 20주년 기념식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천적십자봉사회(회장 강문자)는 지난 18일 조천주민교류센터에서 조천적십자봉사회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대근 지사회장, 김완근 제주시장, 현길호 도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문자 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봉사회가 20주년을 맞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언제나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은행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은 지난 24일 제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됐으며, 보통주 기준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했다.



여행전문가 추천 노천탕에서 즐기는 일본(日本) 3대 야경과 구마모토성 제주출발~일본 규슈 3박 4일

- 규슈 3박 4일 간략 일정
- 1일 후쿠오카-나가사키 이동-온천호텔
- 2일 온천지옥-시마리바시-구마모토이동(페리로 이동)
- 3일 구마모토성-아소산쿠사센리-아소산분화구-후쿠오카 시내

“야외 온천탕에서 즐기는 일본 3대 야경”
 “중·석식 1인 5천엔 이상의 초호화 식사”
 (아소 아카쿠&바사시 / 모츠나베코스요리 / 야키토리무제한)
 “일본 3대 성 구마모토성 관람”
 “자동차를 싣고 떠나는 구마모토 페리어행”
 “일본 전통료칸에서 힐링, 후쿠오카 시내에서 쇼핑”



여행일정 및 요금
 2026년 3월부터 매주(주중출발 w1,500,000~ / 주말출발 w1,550,000~)
 노소핑/노음선/노립 ※ 연유기간(설명절 / 연유기간 등) 요금변동 ※ 성인 8명 출발(8명 미만 시 문의) ※ 항공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 항공료(제주-후쿠오카 왕복), 유류할증료, 호텔비(2인 1실), 전용차량, 정밀정사(입장료에 기재), 현지 가이드비,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비용 및 상급차차(호텔: 1인실 사용)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goem tour 포엠투어 TEL. 064-757-4286
 종합여행업373호(제주시 1100로 3047,2층)